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2010.03.16)

[목 차]

요 약	1
I. G20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5
II. G20 시장별 한국 점유율 동향 및 전망	11

요 약

□ G20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상승

- G20 수입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점유율은 '08년 3.5%에서 '09년 3.8%로 증가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변화>

	'08	'09
금액 (증감률)	309,345 (7.7%)	255,481 (△17.4%)
점유율	3.48	3.82

□ 한국 시장점유율은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 신흥시장 중심 상승

- 러시아 제외 전 G20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상승
 - 브라질 0.7%p, 호주 0.5%p, 아르헨·중국·멕시코 0.3%p 등

□ 경제위기 이후 수입시장 위축과 회복지연,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G20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됨

- 경쟁국 중 중국의 점유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제자리 걸음

<G20 수입시장에서의 7개국 점유율 변화>

(단위 : %, %p)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7개국계
'08	3.5	10.7	6.4	13.1	2.7	0.6	1.3	38.3
'09	3.8	11.1	6.4	14.6	2.8	0.5	1.5	40.8
'08→'09	0.3	0.4	-	1.5	0.1	-0.1	0.2	2.5

□ 우리 주력품목인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및 부품소재류 수요 회복에 힘입어 G20 시장에서 점유율 지속 상승 전망

I

G20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 G20 수입시장 및 7개 수출국 동향

- 2009년 기준 G20 수입시장 규모는 전년비 24.7% 감소한 6.6조불
- G20 수입시장 규모 변화 : 8.9조불('08) → 6.6조불('09)

주1: 본 보고서 상 G20 수입시장의 정의

- 1) G20 중 5개국(英, 獨, 伊, 佛, EU의장국) 수입시장은 EU 전체 수입(역외수입) 통계로 대체
- 2) 인도네시아는 '09.1-11월, 인도 및 멕시코는 1-9월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시장 규모 및 수입국 점유율 추정
- 3)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효한 수입통계 부재로 제외 (이하 동일)

주2: 상기 기준이 아닌 20개 국별 수입액(EU의장국 : 스페인)의 합은 '08년 기준 10.3조불로 전 세계 수입액의 63% 차지

국가	'08 수입액(억불)	국가	'08 수입액(억불)
전 세계	164,150	일본	7,620
아르헨티나	574	한국	4,353
호주	2,003	멕시코	3,232
브라질	1,828	러시아	2,920
캐나다	4,183	사우디아라비아	1,119
중국	11,330	남아프리카공화국	995
프랑스	7,077	스페인	4,023
독일	12,062	터키	2,020
인도	2,916	영국	6,319
인도네시아	1,262	미국	21,660
이탈리아	5,563	계	103,058

자료 : WTO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7개 수출국이 G20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8%
- 7개국 점유율 변화 : 38.3%('08) → 40.8%('09)

□ G20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변화

- 러시아 제외 **쏘G20**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증가
 - '08년 3.5%에서 '09년에는 3.8%로 증가

<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변화 >

	'08	'09
금액 (백만불)	309,345	255,481
(증감률)	(7.7%)	(△17.4%)
점유율	3.48	3.82

주: 1) EU 5개국(英, 獨, 伊, 佛, 意장국) 수입시장은 EU 27 전체 수입시장으로 대체
 2) 인도네시아는 '09.1-11월, 인도 및 멕시코는 1-9월 실적 기준 연간 수입시장 규모 및 구성 추정
 3)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효한 수입통계 부재로 제외

자료 : G20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World Trade Atlas

- 수입시장별 점유율 변화
 - 브라질, 호주, 멕시코, 중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승
 - 브라질 및 호주 수입시장에서는 한국 자동차 인지도 제고에 힘입어 점유율이 각각 3.1%→3.8%, 2.9%→3.3%로 대폭 상승
 - 멕시코에서는 ICT 부품 수출 호조, 중국에서는 내수부양책 관련 적기 대응으로 점유율이 각각 4.4%→4.7%, 9.9%→10.2 %로 증가
 - 러시아에서는 주력품목인 승용차 및 부품류 수입 급감으로 점유율이 4.1%→3.0%로 급락
 - 순위 변화로 보면 캐나다에서는 3단계 상승(10위→7위)했으며, 인도, 미국, 호주에서는 각각 2단계 상승
- 금융위기 이후 수입시장 위축과 회복지연,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G20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G20 수입시장별 점유율 변화>

국가	'08		'09		점유율 변화	순위 변화(상승)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브라질	3.1	7	3.8	6	0.7	1
호주	2.9	10	3.3	8	0.5	2
아르헨티나	1.3	15	1.6	13	0.3	2
중국	9.9	2	10.2	2	0.3	0
멕시코	4.4	4	4.7	4	0.3	0
미국	2.3	9	2.5	7	0.2	2
캐나다	1.4	10	1.6	7	0.2	3
인도	2.8	12	3.0	10	0.2	2
터키	2.0	12	2.2	11	0.2	1
남아공	1.6	17	1.8	16	0.2	1
EU27	2.5	9	2.7	9	0.2	0
일본	3.9	7	4.0	6	0.1	1
인도네시아	4.9	6	5.0	6	0.1	0
러시아	4.1	6	3.0	8	-1.1	-2
계	3.5		3.8		0.3	

주: 1) EU 5개국(英, 獨, 伊, 佛, 意) 수입시장은 EU 27 전체 수입시장으로 대체

2) 인도네시아는 '09.1-11월, 인도 및 멕시코는 1-9월 실적 기준 연간 수입시장 규모 및 구성 추정

3)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효한 수입통계 부재로 제외

자료 : G20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World Trade Atlas

○ 전반적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 속에 한국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공격적 마케팅 전개, 각 정부의 경기 부양책 실시에 따른 설비·원부자재 수요 확대가 한국 점유율 회복의 주요인임

- (브라질) 주택 1백만호 건설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철강 수요 급증
- (호주) 자동차 시장 점유율 대폭 상승
- (멕시코) 대미 수출용 ICT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등) 수요 급증
- (중국) 가전하향 등 내수진작책에 긴밀·효과적 대응
- (미국) 휴대폰 및 평면TV 시장 석권, 가전제품 프리미엄화 선도
- (인도) 산업화 급진전으로 철강·화학제품 수요 증가

□ G20 수입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점유율 변화

- 중국의 G20 수입시장 점유율은 '08년 13.1%에서 '09년 14.6%로 대폭 상승
 - 중국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
- 미국이 중국, EU, 중남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0.4%p의 증가를 보인 반면
 일본은 브라질, 인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부진을 보이며 점유
 율 제자리 걸음
-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소폭의 증감을 보임

<G20 수입시장에서의 7개국 점유율 변화>

(단위 : %, %p)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7개국계
'08	3.5	10.7	6.4	13.1	2.7	0.6	1.3	38.3
'09	3.8	11.1	6.4	14.6	2.8	0.5	1.5	40.8
'08→'09	0.3	0.4	-	1.5	0.1	-0.1	0.2	2.5

주: 1) EU 5개국(英, 獨, 伊, 佛, 의장국) 수입시장은 EU 27 전체 수입시장으로 대체

2) 인도네시아는 '09.1-11월, 인도 및 멕시코는 1-9월 실적 기준 연간 수입시장 규모 및 구성 추정

3)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효한 수입통계 부재로 제외

자료 : G20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World Trade Atlas

<G20 수입시장별 7개국 점유율 변화 (상세)>

(단위 : %)

수입국 \ 수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7개국계
계	'08	3.5	10.7	6.4	13.1	2.7	0.6	1.3	38.3
	'09	3.8	11.1	6.4	14.6	2.8	0.5	1.5	40.8
남아공	'08	1.6(17)	7.8(3)	6.2(4)	11.0(2)	1.8(19)	0.5(38)	0.8(21)	29.6
	'09	1.8(16)	7.6(3)	4.9(5)	13.1(1)	1.2(22)	0.4(42)	0.9(26)	29.8
러시아	'08	4.1(6)	5.4(5)	7.2(3)	13.6(1)	0.7(26)	0.0(84)	0.2(52)	31.2
	'09	3.0(8)	5.7(3)	4.6(6)	14.2(1)	0.6(31)	0.0(88)	0.4(37)	28.5
멕시코	'08	4.4(4)	49.0(1)	5.3(3)	11.3(2)	2.2(7)	0.2(35)	0.6(17)	72.8
	'09	4.7(4)	48.0(1)	4.8(3)	13.6(2)	2.0(7)	0.1(43)	0.6(17)	73.8
미국	'08	2.3(9)		6.6(4)	16.1(2)	1.7(12)	0.3(42)	0.8(27)	27.8
	'09	2.5(7)		6.2(4)	19.0(1)	1.8(9)	0.2(49)	1.0(23)	30.8
브라질	'08	3.1(7)	14.8(1)	3.9(5)	11.6(2)	2.0(12)	0.5(40)	1.0(23)	36.9
	'09	3.8(6)	15.7(1)	4.2(5)	12.5(2)	1.9(12)	0.4(39)	0.5(34)	39
아르헨	'08	1.3(15)	12.0(3)	2.4(9)	12.4(2)	0.7(20)	0.1(60)	0.3(35)	29.1
	'09	1.6(13)	13.2(2)	2.4(7)	12.4(3)	0.8(20)	0.1(61)	0.3(38)	30.6
인도	'08	2.8(12)	5.8(4)	2.5(14)	10.5(1)	0.9(26)	1.6(20)	2.7(13)	26.8
	'09	3.0(10)	6.1(2)	2.7(12)	12.1(1)	1.0(27)	1.9(17)	2.5(13)	29.3
인니	'08	4.9(6)	7.8(4)	15.1(2)	15.2(1)	2.8(10)	1.8(NA)	11.3(3)	59.3
	'09	5.0(6)	8.5(4)	12.6(2)	17.2(1)	2.6(10)	2.1(NA)	12.1(3)	60
일본	'08	3.9(7)	10.2(2)		18.8(1)	2.9(10)	0.2(44)	1.0(24)	37
	'09	4.0(6)	10.7(2)		22.3(1)	3.3(8)	0.2(44)	1.1(23)	41.6
중국	'08	9.9(2)	7.2(5)	13.3(1)		9.1(3)	1.1(20)	1.8(15)	42.5
	'09	10.2(2)	7.7(5)	13.1(1)		8.6(4)	0.8(23)	1.8(13)	42.2
캐나다	'08	1.4(10)	52.4(1)	3.5(4)	9.8(2)	0.9(12)	0.1(51)	0.3(34)	68.4
	'09	1.6(7)	51.2(1)	3.4(4)	10.9(2)	0.9(13)	0.1(52)	0.3(34)	68.4
터키	'08	2.0(12)	5.9(4)	2.0(13)	7.8(3)	0.8(24)	0.1(68)	0.1(65)	18.7
	'09	2.2(11)	6.1(4)	2.0(12)	9.0(3)	1.0(22)	0.1(75)	0.1(63)	20.4
한국	'08		8.8(3)	14.0(2)	17.7(1)	2.4(11)	0.5(28)	1.9(14)	45.4
	'09		9.0(3)	15.3(2)	16.8(1)	3.0(7)	0.5(31)	2.4(14)	47
호주	'08	2.9(10)	11.8(2)	9.0(3)	15.6(1)	2.0(15)	0.6(29)	7.2(4)	49
	'09	3.3(8)	11.1(2)	8.3(3)	17.9(1)	1.7(15)	0.6(28)	5.6(5)	48.4
EU27	'08	2.5(9)	11.7(2)	4.8(6)	15.7(1)	1.5(13)	0.7(23)	1.0(21)	38
	'09	2.7(9)	12.9(2)	4.6(5)	17.9(1)	1.5(14)	0.8(23)	1.2(19)	41.5

주 : 괄호 안은 수입시장 내 순위

자료 : G20 각국 통계청 등 수입통계 발표기관, World Trade Atlas

II

G20 시장별 한국 점유율 동향 및 전망

□ 남아공

- 신용규제, 고금리 정책,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휴대폰, 냉장고 등 한국 주력품목 수출 감소
- 재원 조달 상 난항으로 주요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보류되면서 관련 수송설비, 중장비 등 수요 감소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1,790	2.2 (10)	2.9
2008	1,470	1.6 (17)	△18.0
2009	1,163	1.8 (16)	△20.8

자료 : World Trade Atlas

- 단, 승용차는 엔화 절상에 따른 한국차 가격경쟁력 제고, 소형차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증가세 시현
- 對韓 승용차 수입 : 4.6억불('07) → 2.1억불('08) → 2.7억불('09)
- 최근 對韓 수입이 전 품목군에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임을 감안할 때 점유율 2%대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10.1월 대한 수입은 전년비 40% 증가
- 단, 인도, 태국, 브라질로부터의 승용차 및 화물차량 수입 급증세는 한국 점유율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

□ 러시아

-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09 전체 수입시장 규모가 전년비 40% 감소한 가운데 대한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류 수입 급감하면서 점유율 대폭 하락
 - 승용차 $\Delta 54.4\%$, 자동차부품 $\Delta 74.5\%$, 차체 $\Delta 81.5\%$ 등
- AV기기, 가전제품 등은 한국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 및 수입국 다변화에 따라 점유율 감소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8,826	4.7 (6)	30.4
2008	10,519	4.1 (6)	19.1
2009	4,691	3.0 (8)	$\Delta 55.4$

자료 : World Trade Atlas

- 현지 주요 바이어는 '10 상반기 이후부터 대한수입 본격 회복 전망
 -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완공('10.10 예정)에 따른 기계류 및 부품류 수요 증가
 - KT&G, 롯데, 삼성 등의 생산시설 증설 및 본격 가동에 따른 연관 수요 확대
 - 승용차 재고 소진에 따른 오더 재개
 - LNG선 인도에 따른 선박 수입액 증가 예상
- 한국의 점유율은 상기 호조 요인에 따라 '10년 중 대폭 상승할 것이나 향후 우리기업의 CIS 지역 및 동구유럽 현지생산 증가로 점차 증가세 둔화 전망

□ 멕시코

- 멕시코의 대한 수입은 현지 진출 한국 가전사들의 TV 부분품(평판 디스플레이 등) 등 전자부품 수입이 50% 이상을 차지
- 미주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TV류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멕시코 현지 생산 및 대한 부품류 수입비중도 증가,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7년에 비해 상승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12,614	4.5 (4)	18.8
2008	13,570	4.4 (4)	7.6
2009	10,360	4.7 (4)	△25.4

주 : 2009년은 1-9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 World Trade Atlas

- '10년 미국의 소비수요 회복 예상에 따라 멕시코의 대한 평판 디스플레이 수입은 15% 내외 증가 전망
 - 대한 수입 평판디스플레이(액정디바이스)의 70%는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15%는 멕시코 내수, 15%는 중남미 지역으로 수출
 -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50~55%로 상승 예상
- 평판 디스플레이와 함께 기타 TV용 부품, 가전, 철강 등의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 소폭 상승 전망
 - 특히 철강은 포스코의 현지생산 시설 가동에 따른 냉연반제품 수요 증가, 정부 프로젝트 확대에 힘입어 점유율 대폭 확대 예상

□ 미국

- 소비심리 개선, 한국산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점유율 소폭 증가
 - 침체 장기화 인해 구입을 미루었던 내구소비재류 교체시기 도래
 - 신기술·친환경 제품에 대한 호응도 상승
 - 한국 브랜드의 휴대폰 및 TV 시장 석권, 가전제품 프리미엄화 선도
 - 北美 휴대폰 시장 점유율 1,2위 (삼성, LG)
 - 美 디지털TV, 홈씨어터, 블루레이 플레이어 시장 점유율 1위(삼성)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47,562	2.4 (7)	3.8
2008	48,069	2.3 (9)	1.1
2009	39,235	2.5 (7)	△18.4

자료 :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 '10년 미국 시장점유율 2.8% 전망 (공격적 전망시 3.0%)
 - 한국산 ICT·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 활기, 한국산 제품 신뢰도 향상 및 인기 영향
- 한국 주요 수출품목, 미국 수입시장 선두자리 지속 유지 전망
 -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주요 품목 시장점유율 1~3위 견고히 유지 예상
 - 토요타 자동차의 신뢰도 하락으로 한국 자동차 더욱 선전 전망
 - 우수한 성능, 공격적 마케팅 전개, 현지인들의 생활과 감성에 맞는 제품 출시로 인해 한국산 브랜드 재포지셔닝 및 인지도 지속 상승

○ 부진 요인 상존

-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하락, 원화 강세로 인한 채산성 악화 가능성
-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국산 점유율 상승
 - 기술력 향상, 중국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책 영향
- 디스플레이·전자제품, 멕시코 및 캐나다 근교 생산 선호에 따라 점유율 상승
 -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되어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딜리버리 및 A/S 제공이 용이한 근거리 지역 소싱 증가

□ 브라질

-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재 중심으로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지속 상승
 - 한국 자동차 인지도 제고, 자동차 구입 시 세제 혜택 등에 힘입어 중형차 위주로 대한 승용차 수입 급증
 - 대한 승용차 수입 : 3.1억불('07) → 7.5억불('08) → 9.8억불('09)
 - 07-09 기간 중 디젤유, 항공유 등 대한 석유제품 수입 127배 증가
 - 100만호 서민주택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재(평판압연) 수입 확대
 - 31백만불('07) → 68백만불('08) → 67백만불('09)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3,391	2.8 (9)	9.2
2008	5,412	3.1 (7)	59.6
2009	4,818	3.8 (6)	△11.0

자료 : World Trade Atlas

- '10년 AV기기 및 자동차 생산 회복에 따른 부품소재류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ABS 수지, 타이어 등) 대한 수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일본을 제치고 5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점유율 변화 : 3.8%('07) → 3.9%('08) → 4.2%('09)

□ 아르헨티나

- 전반적인 수입시장 위축 속에서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TV 부품류 수요 확대로 시장 점유율 상승
 - 각종 합섬 및 합성수지의 원료인 텔레프탈산(PTA) 수입이 07-09 간 6배 증가
 - 대우일렉 등의 현지 생산호조에 따른 평판디스플레이 등 TV 부분품 수입 확대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526	1.2 (14)	19.7
2008	732	1.3 (15)	39.1
2009	616	1.6 (13)	△15.8

자료 : World Trade Atlas

- '10년 경기회복에 따른 대한 TV·모니터류, 자동차, 철강, 기계류 수입 증가로 '09년 시장점유율 수준 유지 전망
 - 단, '09.12월부터 특별관세지역 외에서 제조된 전자제품에 내국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산 전자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현지진출 한국 전자기업은 조만간 특별관세지역에서 위탁조립·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인도

- 전체 수입시장 규모가 급감한 가운데 한국산 화학·철강제품 수요 호조로 점유율 상승세 지속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5,477	2.5 (15)	15.4
2008	8,896	2.8 (12)	62.4
2009	6,890	3.0 (10)	△22.5

주 : 2009년은 1-9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 World Trade Atlas

- '09년 크게 위축됐던 대한 휴대폰, 자동차부품 등 수요 회복에 따라 시장점유율 소폭 상승이 기대됨
 - 현대차 인도법인 연간 생산대수는 '11년 60만대에 이를 전망
 - 단, 휴대폰은 현지생산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임

□ 인도네시아

- 대한 휘발유, AV기기 부품류 수입 증가세로 점유율 상승세 지속
 - 현지 제조업 위축으로 경유 수입은 대폭 감소했으나 내수 경기(서비스업, 교통·통신)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면서 휘발유 수요 대폭 증가
 - 현지 IT 내수 호황에 따라 AV기기 부품 수입 호조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1,995	3.8 (8)	
2008	4,792	4.9 (6)	140.3
2009	4,103	5.0 (6)	△24.0

주 : 2009년은 1-11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10년에는 전자부품류, 철강재, 기계류 수요 증대에 힘입어 '09년 점유율 수준 유지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현지진출 다국적 제조사의 조업 정상화
 -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경기 회복 전망
 - 건설기계, 농업기계, 발전설비 등 기계류 수요 증가 예상

□ 일본

- '09년 한국의 점유율은 휴대폰 및 무선통신 설비 부문의 호조로 회복세를 보임
 - 휴대폰 및 무선통신설비 점유율(%) : 13.5('07)→11.5('08)→13.4('09)
 - 일본 전자사들의 조업 위축으로 전자부품 수입은 부진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27,290	4.4 (6)	△0.1
2008	29,501	3.9 (7)	8.1
2009	21,967	4.0 (6)	△25.5

자료 : World Trade Atlas

- 중국제품의 수입확대와 더불어 한국산의 전반적 점유율 축소경향지속 전망
 - 단, 과거 한국상품이 부품소재, 석유화학 등 일부에 치중된 반면 최근 화장품, 식품, 녹색제품 등으로 다변화 추세

□ 중국

- 한국 점유율 소폭 회복
 - 정부의 적극적 소비진작책(家電下鄉, 자동차하향, 以舊換新 등)에 따른 소비시장 규모 확대, 4조 위안 규모 매머드 경기부양책 시행에 의한 건설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한국 점유율 회복세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104,045	10.9 (2)	15.8
2008	112,154	9.9 (2)	7.8
2009	102,125	10.2 (2)	△8.9

자료 : 중국해관통계

- 시장점유율 11%대 회복 전망
 -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등 소비진작책 및 경기부양책이 2010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품목의 대중국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임
 - 세계경기침체 회복에 따른 중국의 수출 증가로 부품·원자재 수요 증가 및 설비투자 확대 전망
- 한국 강세 품목인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에서 일본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3-4년 후 양국 시장점유율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의 점유율 변화(%) : 14.0('07)→13.3('08)→13.1('09)

- 단, 중-아세안 FTA 전면 발효에 따른 ASEAN 점유율 확대, 각국 수출물량의 중국시장 집중으로 경쟁구도 심화, 우리 기업의 중국현지 생산 비중 확대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

□ 캐나다

- '가치소비' 확산에 부합하는 한국상품 인기도 상승
 -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 지속 상승
 - 캐나다달러 강세, 수입기계류 관세 철폐 등도 호재로 작용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4,992	1.3 (7)	△1.8
2008	5,635	1.4 (10)	12.9
2009	5,185	1.6 (7)	△8.0

자료 : World Trade Atlas

- 위기 시 다져둔 시장기반을 발판으로 시장점유율 2%까지 제고 가능
 - 공격적 마케팅, 다양한 신차출시, 토요타 리콜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대한 자동차 수입 호조 예상
 - 건설·제조부문 점진적 회복세로 중장비, 기계류 점유율 상승 전망

□ 터키

- 제조업 부진에 따른 한국산 산업재에 대한 수요도 급감, 고가 소비재 수요 위축 등으로 한국상품 수입 전반적 부진
 - 단,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형차부문 진출 확대, 탱커 인도에 따라 전체 점유율은 '08년 대비 소폭 상승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4,380	2.6 (11)	23.0
2008	4,092	2.0 (12)	△6.6
2009	3,119	2.2 (11)	△23.8

자료 : World Trade Atlas

-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양, 자동차, 가전 판매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보이는 등 수입 구매력 회복세
- 그러나 수출 및 산업생산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한국의 점유율도 '09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호주

- '09년 전체 수입액이 17% 감소한 가운데 대한 수입액은 16.2%증가 하였으며 점유율도 '08년 대비 상당 폭 상승
 - 현대차가 '09년 시장점유율 5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산 자동차의 성가가 날로 높아지면서 점유율 상승세 주도
 - 휴대폰, TV·모니터, 타이어 등 주력 품목도 예년 수준 유지 내지 증가세를 보임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5,941	3.2 (10)	△19.4
2008	6,427	2.9 (10)	△10.1
2009	6,628	3.3 (8)	16.2

자료 : ABS, World Trade Atlas

○ 한국상품 점유율 지속 상승 전망

- 글로벌 자원수요 증가로 자원부국 호주의 빠른 경기 회복 예상
- 호주화 가치 상승과 맞물려 자동차, 백색가전, IT기기 등의 수입 수요 대폭 증가 전망

□ EU

- 주력 품목 수입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대한 선박(탱커) 인수, 디스플레이 패널 수입 증가 등으로 '08년 대비 전체 점유율 소폭 상승

<대한 수입 및 점유율 변화>

(단위 : 백만불, %)

연도	금액	시장점유율 (순위)	증감률(금액)
2007	56,444	2.9 (9)	10.0
2008	58,076	2.5 (9)	2.9
2009	44,580	2.7 (9)	△23.2

자료 : World Trade Atlas, Eurostat

○ '09 점유율 수준 유지 전망

- 남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유로 약세로 환율 효과 약화
- 한-EU FTA에 따른 시장진입 장벽 완화, 월드컵 특수 등에 따른 AV 수입 확대 전망 등이 호재로 작용하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재연, 뚜렷한 대한 수입 및 수입 점유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

□ 전망 종합

- 우리 주력품목인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및 부품소재류 수요 회복에 힘입어 G20 시장에서 점유율 지속 상승 전망

Kotra Executive Brief 10-005

G20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변화 동향 및 전망

발행인 | 조환익
편집인 | 오성근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0년 3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